

적자에도 임원 연봉 올리는 나주 혁신도시 공기업

12곳 중 5곳 당기순이익 감소...aT 적자 전환·농어촌공사 78% 감소
농어촌공사·한전KPS 등 6곳 임원 연봉 상승...평균 1억6392만원
방송통신파진진흥원 '21억 적자'...업무추진비는 1200만원 올려

지난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12개 공기업·기관 가운데 절반 가량이 5개사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8개사는 전년보다 임원 연봉이나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올렸다.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 12개 공기업·기관 가운데 5개사가 적자 전환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적자 전환한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방송통신파진진흥원 등 2개사였고,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곳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주) 등 3개사였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19년 4억3600만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이듬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당기순손실 6억2700만원을 냈다.
방송통신파진진흥원은 27억7700만원 흑자에서 20억6200만원 적자로 돌아섰다.
농어촌공사 당기순이익은 423억4700만원에서 91억8100만원으로, 무려 78.3%(-331억6600만원) 감소했다.

한국전력의 그룹사인 전력거래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0억4500만원으로, 전년(82억6800만원)보다 75.3%(-62억2300만원)이나 감소했다. 발전정비회사인 한전KPS도 1533억3100만원에서 870억5800만원으로, 43.2%(-662억7300만원)나 당기순이익이 줄었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의 당기순이익(연결 기준)은 2조925억원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유가가 하락한 덕분에 전년보다 4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전KDN의 당기순이익은 452억700만원으로, 전년(422억500만원)보다 7.1%(30억200만원)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당기순이익이 전년의 10.3배(925.3% ↑) 수준인 51억3700만원으로 불어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65억3000만원에서 163억1100만원으로 150.8%(98억8000만원) 급증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전년보다 35.9%(3001억원) 증가한 1조13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해 적자 폭을 4억1200만원 상당 줄인 2억2900만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당기순손실이 50억

■ 나주 혁신도시 12개 기관 공시내역

기관명	당기순이익				전년비 증감	
	2019	2020	증감	증감률(%)	임원 연봉	업무비
한국전력공사	-2조2635억	2조925억	4조3560억	흑자 전환	226만	-526만
한전KPS(주)	1533억	871억	-663억	-43.2	5634만	-197만
한국방송통신파진진흥원	28억	-21억	-49억	적자 전환	-2208만	1179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억	-6억	-11억	적자 전환	-683만	-340만
한국농어촌공사	423억	92억	-332억	-78.3	109만	-542만
한국전력거래소	83억	20억	-62억	-75.3	-737만	-163만
한국콘텐츠진흥원	-51억	-13억	37억	적자 유지	-47만	-1543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6억	-2억	4억	적자 유지	-1595만	377만
한전KDN	422억	452억	30억	7.1	250만	74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8349억	1조1351억	3001억	35.9	538만	389만
한국인터넷진흥원	65억	163억	98억	150.8	58만	106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억	51억	46억	925.3	-683만	-325만

(단위:억, 자료:알리오)

5000만원에서 13억1200만원으로 적자 폭을 37억 3800만원 좁혔다.
이처럼 나주 혁신도시 공기업 절반 가까이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지만, 일부는 상임임원 연봉과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전년보다 올렸다. 임원 연봉이나 업무추진비를 올린 곳은 총 8개사로, 이 가운데 농어촌공사, 방송통신파진진흥원, 한전KPS,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4곳은 적자 상태이거나 적자 폭을 넓혔어도 인상을 단행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의 5분의 1토막 수준으로 줄었지만 임원 연봉은 100만원

넘게 올렸다. 지난해 농어촌공사 상임임원 평균 연봉(1인당)은 1억3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9만 4000원(0.8%) 인상됐다.
당기순이익이 700억 가까이 줄어든 한전KPS는 임원 연봉을 평균 5600만원 넘게 올렸다. 이곳 상임임원 평균 연봉은 지난 2019년 1억2593만원에서 다음해 1억8227만원으로, 44.7%(5634만원) 증가했다.
3년 만에 흑자 전환한 한전 평균 연봉은 226만원(1.1%) 가량 올린 2억71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나주 혁신도시 최고 수준이다.

한전KDN 상임임원들은 1인당 250만원(1.3%) 오른 1억9048만원을 연봉으로 받았다. 인터넷진흥원 임원들은 58만원(0.3%) 증가한 1억7026만원을 평균적으로 가져갔다. 사학연금 임원 평균 연봉은 538만원(3.7%) 오른 1억4956만원이었다.
12개사 상임임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6392만원으로, 전년보다 72만원(0.4%) 증가했다.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늘린 기관은 5곳이었다.
지난해 20억원 넘는 적자경영을 한 방송통신파진진흥원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3976만원을 썼다. 지난 2019년 2797만원보다 1179만원(42.2%) 늘어난 금액이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업무추진비는 지난 2019년(155만원)의 3.4배(243.9% ↑) 수준인 531만원으로 불어났다. 인터넷진흥원장은 전년보다 106만원(3.4%) 증가한 3235만원을 썼다. 한전KDN 사장은 74만원(60.5%) 늘어난 196만원을, 사학연금 이사장은 389만원(13.9%) 오른 3184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한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전체 34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5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36개 공공기관은 전체적으로 6000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96개 준정부기관과 215개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3조1000억원, 2조 8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상권특화형 쇼핑몰' 롯데몰 여수점 오픈

1만5000㎡ 규모 내일 개장
전국 최초 '롭스 플러스' 입점
명품 편집샵·키즈 특화 공간 등



오는 5일 새롭게 선보이는 복합 쇼핑·문화공간 '롯데몰 여수점'. (롯데쇼핑 제공)

롯데마트 여수점이 전남 동부권 상권을 사로잡기 위해 '상권 특화형 쇼핑몰'로 재탄생한다.
롯데쇼핑(주)은 롯데마트 여수점이 상권 특화형 '롯데몰 여수점'으로 새단장에 오는 5일 문을 연다고 3일 밝혔다.
롯데몰 여수점은 여수국가산업단지외곽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 풍부한 상권을 기반으로 한 '여수 쇼핑 1번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새단장한 점포는 영업면적 1만5000㎡ 이상 3층 규모로 문을 연다. 5개월 간 개선 공사를 거쳐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면모를 동시에 만날 수 있다.
1층은 20~30대 거주층이 많은 여수지역 특성을 살려 가정간편식 전문관을 기존 대비 두 배로 넓혔다. 와인 전문매장과 캠핑용품 매장도 확충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건강기능식품·미용용품을 5배 보강한 100평(330㎡) 규모 '롭스 플러스'가 선보여진다.

점포 2층에는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구성된 휴게 공간 '포켓 라운지'를 조성해 고객들이 여수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주얼리 브랜드 '은가비'와 협업해 바닥과 천장, 기둥을 '크리스탈 트리'로 화려하게 꾸몄다.

레스토랑 '메드포칼라'와 660㎡ 규모 '한샘리하우스'도 여수에서는 처음으로 들어선다. 리빙 특화 매장은 '삼성전자', '템퍼', '다우닝', '닥스홈패션' 등 브랜드가 채운다.
여수·순천·광양지역 최초의 명품 편집샵을 내건 '탑스'(TOPS)도 자리한다. '툰브라운', '생로랑', '버버리' 등 해외명품이 매대를 채운다.
3층에는 한국과 중국, 태국 등 동아시아 대표 맛을 모아 놓은 '이스턴 테라스'가 고객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줄 예정이다. 중식대가 유방영 셰프의 '만추'와 냉면맛집 '성수면옥'이 입점했다.
'식객' 허영만 작가의 웹툰 배경으로 알려진 서울 연희동 베이커리 카페 '노아로스토틱'도 이곳에 들어선다. 같은 층에는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서점과 제빵교실 등이 들어서 복합 문화공간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아동 서적과 교구, 용품 등이 모인 키즈특화 공간 '동심마루'도 선보인다.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는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상권과 고객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점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리뉴얼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 롯데마트의 새로운 공간 혁신 매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UCC 동영상 공모전



5월10일부터 6월7일까지
대상 500만원 등 5편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고객 대상 동영상(UCC) 공모전을 오는 10일부터 6월7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내용은 광주은행 브랜드 이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UCC 영상이나 오는 14일 광주은행 홈페이지에 배포되는 캠페인 노래 '상생으로'의 의미가 잘 전달되는 영상 중 하나를 골라 만들면 된다. 2분 이내 분량으로 제작해 이메일(kjbantv@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7월 발표(개별 통지·홈페이지 공고)할 예정이다. 상금은 대상 1편 500만원, 최우수상 1편 300만원, 우수상 3편 각 100만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kjbank.com)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공식 소셜미디어(SNS)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종 금융정보

와 상품, 행사 등을 소개하며 고객과 소통을 넓히고 있다.
올해 11기를 맞는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들은 지난달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온라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은행 직원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박광수 광주은행 홍보부장은 "이번 UCC 공모전을 통해 광주은행의 브랜드 이미지가 보다 많은 분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광주은행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고객에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27.20 (-20.66)
↓ 코스닥	961.81 (-21.64)
↑ 금리(국고채 3년)	1.149 (+0.008)
↑ 환율(USD)	1124.00 (+11.70)

오피스텔 신축 부지

- ▶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156평, 일반상업지역
- ▶ 지하1층 지상9층, 47㎡, 64호실
- ▶ 임대/분양 100% 최고 장소
- ▶ PF 28억 가능, 허가 득
- ▶ 매매 - 협의

월세660만원 고정 수입

- ▶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 ▶ 6층중 4층 전체, 240평
- ▶ 메리츠증권회사 임대 중
- ▶ 3면이 바다 전경, 뷰 좋음
- ▶ 용자 6억8000만원 있음
- ▶ 회사 사정상 급매, 15억 →13억

거문도, 싹땅

-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 ▶ 대지 50 ~ 400평씩 매매
- ▶ 펜션, 주택, 별장부지
- ▶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 ▶ 근접땅 경매로 50만원 낙찰
- ▶ 급매 - 평당 30만원씩

제일오피스텔

-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 20층 중 8층, 코너, 전망 좋음
- ▶ 계 108㎡, 분양 67㎡, 사무실 전용
- ▶ 즉시 입주 가, 주차 2대 무료
- ▶ 임대, 보1천에 월50만 가능
- ▶ 매매 - 1억1000만원(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